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4.1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NATO 사무총장, 코로나로 인한 '안보위기' 경고
 - 4.1 「스톡홀름베르크」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사무총장은 원격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NATO가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, “알카에다·ISIS의 테러위협은 여전한 만큼 코로나로 인한 ‘보건위기’가 ‘안보위기’로 번져선 안된다고 강조
 - * 4.2~3 NATO 외무장관 회의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실시
- 佛, 남부 도시에서 흉기테러로 2명 사망
 - 4.4 프랑스 현지언론은 남부 소도시 로망쉬르이제르에서 수단 출신 용의자(33세)에 의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였으며, 당국은 이를 테러사건*으로 보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중이라고 보도
 - *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체포 당시 아랍어로 “신은 위대하다”라고 외쳤다고 증언
- 英, 新나치주의 단체 지원 혐의로 16세 소년 기소
 - 4.6 英 웨스턴민스턴 법원은 新나치주의 테러단체 ‘Nation Action’을 지지하고 테러·인종혐오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SNS에 게재한 16세 소년에 대해 총 11건의 테러범죄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

미주

- 美, ‘백인우월주의 단체’ 국제테러단체로 최초 지정
 - 4.6 美 국무부는 러시아의 백인우월주의 단체 ‘Russian Imperial

Movement*와 지도부 3명을 각각 국제테러단체와 국제테러분자로 지정하고, 자산동결 및 미국 입국금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

*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新나치주의자와 백인우월주의자에게 군사훈련 제공

○ 美, SNS에 '코로나 전파' 위협한 여성 테러혐의 수사

- 4.7 美 경찰은 텍사스에 거주하는 「로레인 마라디아(女, 18세)」가 SNS上 자신이 코로나 감염자라면서 대형마트를 방문하고, 타인 감염을 위협하는 영상을 게재하자 테러 혐의로 수사 착수

중 동

○ 이슬람 테러단체, 코로나 혼란을 틈타 테러 모색 중

- 4.1 이스라엘 현지언론은 알카에다와 ISIS가 코로나 여파로 테러 활동에 지장을 받아 왔으나, 최근 분쟁지역에서 각국 군대가 코로나 상황 극복지원을 이유로 철군한 틈을 테러 기회로 삼고 있다고 보도
 - * 국제위기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데 핵심이 되는 '글로벌 연대'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

○ 아프간, 시크교 사원테러 주도 ISIS 아프간지부 리더 체포

- 4.5 아프간 보안당국은 지난달 25일 카불 시크교 사원테러*를 주도한 ISIS 아프간지부 리더 「아슬람 파루키」와 그 조직원 19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 - * 3.25 카불 시크교 사원에서 폭탄공격과 총기난사로 25명 이상 사망

아프리카

○ 튀니지, 라마단 기간 테러 계획한 ISIS 조직원 검거

- 4.1 튀니지 보안군은 수도 튀니스에서 올해 라마단 기간(4.23~5.23) 중 보안기관·해외공관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계획한 ISIS 조직원을 검거하였으며, 용의자가 폭발물 제작부품 등을 구입하여 폭발물 제조 전문가 2명과 접촉하였음을 자백했다고 발표

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

- '17.4.3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객차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4명 사망·49명 부상
 - 용의자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러시아 시민권자 「아크바리온 자틸로프(22세)」로서 소화기 안에 쇧조각·유리파편을 채워 만든 사제폭발물을 사용해 테러 자행
 - 러시아 대테러대응팀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인근 지하철역에서 또 다른 폭발물을 발견하여 즉각 해체 작업 진행
- 테러 직후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이 배후를 자처한데 이어, 러시아에 시리아에서의 철군을 요구하며 추가테러 위협
- 러시아 당국은 同 사건을 즉각 테러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, 테러를 총괄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「아브로르 아시모프」 등 총 10명을 체포

< 열차(지하철 포함) 테러사건 >

- (특 징) 다수가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대량의 인명피해 발생이 가능하며 항공기에 비해 검문·검색이 허술하여 테러단체의 빈번 표적이 되어 테러가 빈발
 - * ISIS는 서방국 대상 고속열차 테러 선동('17.9), 알카에다는 철로탈선장치 제조법 소개('17.8)
- (주요 테러사건)
 - '95.3 일본,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(13명 사망·5,000여명 부상)
 - '04.3 스페인, 알카에다 연계조직의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(191명 사망·2,000명 부상)
 - '05.7 영국, 알카에다 연계 테러범의 런던 지하철(3곳)·버스(1곳) 동시다발 자폭테러(52명 사망·700여명 부상)
 - '16.3 벨기에, ISIS의 자벤텀 공항·말베이크 지하철역 동시다발 자폭테러(32명 사망·340명 부상)